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간의 관계

조 순 옥¹⁾

채 수 은²⁾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의 페르소나가 학생-아버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면담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과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페르소나와 학생-아버지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K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녹취,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같은 지역 1학년 학생 298명(남 161명, 여 137명)에게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학생의 아버지 298명에게 다면 페르소나 검사에 응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중다회귀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몸으로 돌아주는 아버지, 함께 이야기하는 아버지, 바쁜 아버지, 화를 내는 아버지, 잔소리꾼 아버지, 따로 있는 아버지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에 따르면 완벽지향과 체면 지향 페르소나 경향이 참여 아버지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났다. 페르소나와 의사소통의 성별 차도 뚜렷하였다. 아들은 배려지향페르소나가 딸은 완벽지향페르소나가 자녀-아버지의 상호적 의사소통 태도와 관련이 높았다. 이는 같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일지라도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페르소나 활용이 달라야 효과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아버지 페르소나, 초등학교 1학년, 의사소통, 성별차

1)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 강사

2)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 부교수 (E-mail: schae@gwnu.ac.kr)

I. 서 론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군상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개념 중에 중요한 타인의 페르소나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이며 그 인물이 보여주는 페르소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은 성인에 비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어린 학생들에게 훨씬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아동들은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고 해당 상황의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주변의 대상이 보여주는 페르소나를 파악하고 이들이 주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챌으로써 심리적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붙어지는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사회 활동 중에 나타난다. 초등학교 1학년은 공식적으로 형식 교육을 통한 사회화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심리발달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많은 자녀들이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의 전환 시기에 규율과 규칙, 넓은 사회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Huh & Lee, 2012). 특히 입학 초기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정도, 또래 관계,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는 1학년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2005; Joo & Park, 1999).

그렇다면 학교 적응 초기 학생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타인이 보이는 표상은 어

떠하며 이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주목 하였다. 학령기 시작 시 아버지가 주목 받게 되는 이유는, 이 전 시기까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양육이 중요했던 것에 비해 학교생활 시작과 동시에 학업, 교육 중심의 양육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 중심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커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주목하였다(Chae & Koran, 2017). 심지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 발달 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표본보다 한국 표본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 특성 간에 더 강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Lee, Kim, Lee, & Chin, 2012). 이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역할을 더 많이 수행할 경우, 자녀의 내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자녀가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거나 낮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화 되면서 점차 성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와의 관계 설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시대적 차이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들

에 대한 아버지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딸에 대한 아버지 역할을 모델링할 만한 경험이 부족해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다른 양육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연구가 있다 (Chae & Kwon, 2010). 아버지와 사회관계망 중 아버지의 처벌, 결속력, 전문역량 등에 대한 지각과 같은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Han, 1994).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Yoon & Cheong, 1999; Pleck & Masciadrelli, 2004) 자녀의 성별과 부모 양육태도의 관계는 여전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Cho & Chae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들에게는 비판적인 페르소나 성격이, 딸에게는 체면지향적인 페르소나 성격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자녀-아버지의 관계가 학령기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표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개인면담 과정 중에 보이는 아버지 인식을 분석하고, 아버지가 보이는 페르소나에 따라 자녀-아버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버지 페르소나 인식,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간 이해를 통해, 자녀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방법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페르소나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논하고 아버지 양육과 교육 장면에 페르소나 이론이

유입된 과정을 기술하였다. 둘째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해 학교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아버지 페르소나와 관련된 연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리하였다.

1.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한다. 즉, 남에게 보여 지는, 또 남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을 말하는데 ‘학생다움’, ‘남자다움’, ‘스승다움’과 같이 ‘~다움’의 모습이며 본래의 나(自己, Self)와 대비되는 표현이다. 남에게 보여 지는 가면적 측면이 사람의 불가피한 속성임을 고대 서구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였다(Kim, 2004). 페르소나가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융에 의하여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내적 인격인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에 대응되는 외적 인격이라는 의미로 페르소나를 사용하면서 부터다(Shim & Park, 2004). 즉 페르소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겉껍질의 자아로 인격체처럼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외적 인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페르소나(persona)는 어떤 사람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회와 개인 사이의 타협, 즉 집단정신과 개인의 욕구간의 타협에 의하여 나타나는(Jacobi, 1973) 태도나 성격을 의미한다.

Stone과 Stone(1989)은 내면대화요법(Voice Dialogue)을 통하여 개인의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보

편적인 페르소나로서 9가지의 주요 페르소나로 언급하였다. 페르소나는 각기 독특한 역사, 고유한 에너지 패턴과 신념, 행동양식이 있다.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보호 통제페르소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도록 밀어붙이는 성취지향페르소나, 완벽성을 목표로 하면서 추구하게 하는 완벽지향페르소나, 우리 자신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비판페르소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배려 지향페르소나, 강함과 주도성을 중시하는 권력지향페르소나, 감수성과 연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감한어린이페르소나, 어린아이처럼 잘 놀 줄 아는 유희적어린이페르소나, 마술적어린이페르소나 등이 대표적으로 발견된 페르소나이다. 한국에서는 Park & Shim(2006)이 Stone과 Stone(1989)의 당초 9개 페르소나 모형에서 마술적어린이페르소나 대신 체면페르소나를 포함해 9개의 페르소나 척도를 개발하였다. 박순환과 심혜숙의 9개 페르소나 모형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중요시 되는 체면지향 행동을 보편적인 심리사회 행동 특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페르소나 모형과 차별성이 있다.

페르소나 성격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부모의 개인 특성 변인으로서, 어떻게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에 관련되는지 다루지 못했다. 예컨대, 우울증 환자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고(Park, 2006), 페르소나 성격과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연구(Kwon, 2009)가 진행되었지만 이들은 의학모형이나 부정적 행동 패턴의 해석을 위해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성 역할의 변화에 따라 어머

니 페르소나와 아버지 페르소나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여성에게조차도 아버지 페르소나는 여전히 엄격함과 남성성(masculinity)으로 특징지어지는 경향이 강하다(Murphy, 2019).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격을 외부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인 페르소나,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버지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페르소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병적 문제 행동에 국한되거나, 일반 이론마저도 극적 상황이나 사회적 장면에 따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인문사회 현상을 공학과 연관 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페르소나를 의사소통의 기초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Li et al., 2016). 소위 페르소나 기반 신경 대화 모형(Persona-based Neural Conversation Model)이라 불리는 이 모형에서는 두 개의 대화자가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대화 내용을 유형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이론에 따라 해석하자면,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페르소나는 두 개의 대화자인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관계를 통해 유형화 할 수 있다. 페르소나-의사소통 간 연계가 공학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경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드러난 아버지의 페르소나에 집중하여 아버지 페르소나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은 최근 한국에서 원활한 가족 관계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사회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Chae & Koran, 2017). 흔히 아버지가 학령기 자녀와 나누는 의사소통의 비중은 학령기 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큼 중요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뿐 만이 아니라 자녀의 높은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 2012). 아버지가 자녀에게 촉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 때 자녀가 소외감을 적게 느끼고(Han, 2003),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영역인 학교수업, 학교친구, 교사관계, 학교규칙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박유니, 이정숙, 2012).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가정 내 긍정적 의사소통 경험이 이후 학교생활에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자녀 대화에서 순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학교 적응에 성공할 수 있다(Chi, 2007). 학령기 아동에게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나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 이들의 학업 성취와 관련이 깊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Paik, Hyun, & Han, 2008; Yoo & Shin, 2012; Yim & Cheon, 2012; Choi & Won, 2013)를 볼 때 이해하기 쉽다.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많은 영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아버지는 인지적 발달, 학업성취와 같이 학습과 관련된 분야에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Lee, 2008).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 중에 자아 확립과 적응력 형성에 중요하며(Kim, 2006; Han, 2010) 언어나 행동, 습관 의 동일시나 모방은 자녀의 생활습관이나 성격을 형성에 결정적이다(Kim & Shin, 2014).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 자녀-부모 관계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배경 변인과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연령이 의사소통의 차이를 낳았으며(Shin, 1994),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도 영향을 미쳤다(Kim, 1989).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도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hin, 1994; Chae & Hwang, 2014).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결정적이라는 결과가 다수를 차지한다(Kim, 2015; Han & Lee, 2015; Smetana & Daddis, 2002). 예컨대 아버지의 부정적 심리특성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저해가 되는 의사소통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5). 즉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이 자녀-아버지라는 관계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개인면담 중 나타나는 아버지 표상과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개인면담 과정에서 보여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패턴과 이때 드러난 아버지 페르소나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가 인식한 아버지 페르소나의 관계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적응기에 있는 자녀와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면담 과정에서 보여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패턴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가 보고한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면담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과 아버지 자신이 인식하는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관계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질적 탐색을 위한 면담 대상자는 K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9명이었다. 이 내담자들은 적응 문제, 인지발달 문제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 선정되었다. 양적 분석 대상은 서울, 강원도 소재의 초등학교 10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98명과 학생의 아버지 298명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버지의 연령대는 30-40(96%)대, 학력은 4년 대졸(51%),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22%), 아버지 수입은 300-399만원대(2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 161명(54%), 여 137명(46%)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GWNUIRB-2017-7).

2. 절차

개인 면담에 대한 질적 연구

참여자의 부모 동의하에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서 초등학교 1학년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3회기 총 27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개인면담 참여 학생은 모두 임상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정상아였으며 자발적 신청에 의한 참여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다음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밖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양상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1명당 1회 라포(Rapport) 형성 시간 10분을 포함하여 40여 분 진행되었다. 면담을 담당한 연구자1은 20년 이상 현장 상담을 담당했으며 상담사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상담인이다.

3회의 상담 중 얻은 축어록은 연구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식을 적용하여 주제별범주화, 유형화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 2인의 분석자(교육심리전공 교수 1명, 교육심리전공 박사 1명)가 함께 녹음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을 담당한 연구자 1이 분석 코딩,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연구자 1의 코딩 프로토콜에 따라 녹음 내용 중 20퍼센트를 연구자 2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

1과 2의 코딩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80%의 평정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연구자 1이 모든 녹음 내용에 대한 코딩,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텍스트의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화는 크게 1.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상) 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 story)’ 즉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가며, 지식을 구체적이고 내러티브적이며 관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Clandinin & Connelly(2000)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구자가 채택한 연구의 기본 배경은 Clandinin & Connelly(2000)의 삼차원적 공간(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다. 삼차원적 공간은 학교라는 환경(상황과 맥락), 아버지의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련성(개인적, 사회적 상호관련성), 아버지 페르소나의 배경이 되는 과거가 아버지-자녀 의사소통이라는 현재적 상황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시간적 연속성)와 같은 세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아버지 페르소나 및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질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응답한 페르소나를 독립변인으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측정지는 아래와 같다.

3. 측정 도구

아버지 페르소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페르소나 측정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운데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보호통제와 강함추구페르소나를 제거한 7개 페르소나 모형이 적용한 페르소나 검사 수정판 97문항(Park & Shim, 2006)을 사용하였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각 문항 기술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아주 다르다(1점)”에서 “아주 비슷하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설계하였다. 아버지 페르소나 측정 도구는 아버지가 직접 자기 보고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7개 페르소나별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87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적절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에서 아버지 페르소나 측정 결과값은 각 페르소나별로 포함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참여학생들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질문지에 서면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의사소통 질문지는 Kang(1995)이 개발하고 Cheon(2009)가 재구성한 의사소통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용을 초등 1학년 자녀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예: 18. 편지나 게시물 등의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하신다 → 말로 하지 않고 편지 등 다른 방식으로 의사 전달하신다). 총 18개 문항에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가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자녀가 행동할 수 있는

표 1. 아버지 페르소나 측정지 구성: 문항, 요인 및 신뢰도

페르소나	문항수	정의	예시 문항	내적 일치도
비관	7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주 느끼며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성	나는 자주 스스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80
성취지향	7	무엇이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길 희망하며 자신의 가치는 성공에 있다고 믿는 경향성	나는 주위의 친구나 동료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한다.	.60
체면지향	6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며 격식을 지키려 하고 체면 때문에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성	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3
민감한 어린이	12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경향성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면 쉽게 상처를 받곤 한다.	.86
배려지향	12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	나는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에 마음을 더 편안해 한다.	.84
유희적 어린이	12	대체로 즐거우며 흥에 취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경향성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차 있다.	.79
완벽지향	10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자 하는 경향성	나는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는 경향이 있다.	.87

의사소통 행위를 기준으로 경청태도(수용, 비수용) 영역과 의사전달태도(촉진, 명령)영역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문항 분석 결과에 따라, 수용과 촉진이 상호적 의사소통구인으로 묶이고 비수용과 명령이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묶여 크게 두개 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표 2.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측정지 구성: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 (문항수)	의사소통 방식	예시 문항	내적 일치도
상호적 (7)	수용과 촉진	아빠는 나와 대화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빠는 나에게 ‘해보자’ 또는 ‘하자’는 식으로 자주 말씀하신다.	.70
일방적 (6)	비수용과 명령	아빠는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아빠는 나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75

요인 내의 하위 구인을 없애고 단순히 상호적 의사소통과 일방적 의사소통의 두 개 요인 구조를 유지하였다.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70에서 .75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를 위해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별로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다.

III. 결 과

1. 면담 과정 중 나타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패턴

학생들은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내어 놓는 데는 라포 형성 시간이 필요했다. 면담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 한 후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상 주요 주제는 첫 세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자녀들이 보고하는 아버지 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 이미지와 의사소통을 주제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 - ‘아빠랑 애기한 적 없어요’ 둘째,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아버지 - ‘아빠랑 저는 호홉이 잘 맞아요’ 셋째, 너무나 바쁜 아버지 - ‘아빠는 통화만 해요’ 넷째, 화를 내는 아버지 - ‘우리하고 있을 때 웃는 표정이 없어요’ 다섯째, 해라, 하라고 잔소리 하는 아버지 - ‘아빠는 회장님 같아요’ 여섯째,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 - ‘아빠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이다. 질적 연구에서 나타난 여섯 가지 아버지 상은 이후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페르소나 7유형(비판, 성취, 민감한, 배려, 유희적, 완벽, 체

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는 유희적 아버지상,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아버지는 배려하는 아버지상, 너무 바쁜 아버지는 성취 혹은 완벽지향 하는 아버지상, 화를 내는 아버지는 비판적 아버지상, 잔소리하는 아버지는 민감한,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는 체면지향적인 아버지와 어느 정도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나타난 아버지 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 - ‘아빠랑 애기한 적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은 아버지와 장난감 하며 바깥 활동도 하고 대체적으로 잘 놀아주는 아버지를 얘기했다. 아버지와 몸을 움직여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참여자들에게는 대체로 즐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몸으로 함께 노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에 반해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애기한 적 없어요’ ‘아빠는 아무 말 안 해요’라고 얘기하였다. 아버지들은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비언어적 신체활동과 스킨십을 통해 시도 하는데 반해 자녀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으로 인식하기보다 놀이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지시나 명령을 하는 형태의 의사전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빠와는 장난감 놀이, 운동놀이 딱지 치기도 해요. 내가 이긴 적도 있고 아빠가 이긴 적도 있어요. 아빠는 그런 거 해

주는 사람. *아빠*는 *놀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빠와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A야 놀자, 밥먹자, 가자, 이런 얘기는 해요. 어떨 때는 배고프다고 웃으면서 계속 음식 달라고 해요. *아빠*가 다 이어서 하거든요.

<2017. 7.13. A 1차 세션>

레고로 큰집도 만들고 작은 집도 만들어서 놀아요. 수영장에서 *아빠*가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보물찾기 같았어요. 안경이 망가져서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아빠*가 코를 낄쥔하게 해서 쓰면 된다고 해서 웃겼어요. *아빠*가 화장실 있을 때 불을 켜다가 껐다하면 *아빠*가 웃어요. *아빠*는 장난하는 걸 좋아해요. *아빠*는 그런데 잔 소리가 많아요. 양치는 했느냐, 숙제는 했는지, 9시가 넘었다고 빨리 자라고 하는 등…….

<2017. 7. 10. H 1차세션>

*아빠*가 일찍 들어올 때는 형하고 저한테 *좁비* 놀이해요. 그건 나하고 형이 숨으면 *아빠*가 *좁비* 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찾는 거예요. *아빠와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다른 때는 맨날 늦어요. 화도 잘 내고요. *아빠* 목소리는 화날 때만 들리는 것 같아요.

<2017. 6. 13. B 1차세션>

이야기 하며 함께 하는 아버지 - ‘*아빠*랑 저는 *호흡이 잘 맞아요*’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아버지, 아이

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늦은 저녁 함께 책을 읽는 아버지였다. 자녀들과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도 하고 엄마의 생일파티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등 아버지 자신보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하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함께해 주는 아버지였다.

아빠 생각하면 *아빠*의 수업 난 모습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집에서 *아빠*를 만나면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거랑 그리고 슬펐던 이야기랑 이런 거 해요. 오늘 친구가 연필을 뺏어갔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아빠*가 이놈의 자식 누가 우리 예쁜 00를.. 이렇게 말해주어서 좋았어요. *아빠*랑 저는 *호흡이 잘 맞아요*. 놀러 갈 곳을 정할 때에도 어디 가고 싶은지 말하라고 해요.

<2017. 6. 28. I 1차세션>

아빠 생각하면 미소가 생각나요……. 엄마 생일날 *아빠*랑 동생이랑 생일 파티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로 쓰고 했는데 다 지워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데 야단치지 않고 타이르고 다시 *아빠*가 고쳐서 편지도 쓰고 선물도 만들어 줬어요. 생일파티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아빠*는 *엄마*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2017. 6. 7. G 1차세션>

아빠하고 책 읽었던 거 생각나요……. *아빠하고 언니하고 동물원이 있어야 할지 없어야 할지 토론 했어요* 언니는 없어야 한다고 했고 *아빠하고 저는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얘기하면서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언니하고 싸워서 혼낼 때는 너무 무서워요. *함께 외식 갈 때 아빠는 언니하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결정해요*

<2017. 6. 16. F 1차세션>

너무나 바쁜 아버지- ‘아빠는 통화만 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은 밖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적어 보였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몰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애정표현이나 지시적인 의사전달 방식을 취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 결과 자녀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아빠는 바쁜 사람이에요……. 밤샘 적도 있어요……. 일도 하고, 외식 하고, 술 먹기도 하고 *아빠하고 노는 시간은……. 10초 노는 데요* *아빠하고 노는 시간도 어차피 지루하고 따분해요*. 술 마시고 나한테 뽀뽀하는데 정말 싫어요.*

<2017. 7. 20. E 1차세션>

*아빠는 집에서 하는 게 없는데요……. *아빠는 매일매일 회사에 가서 늦게 오는데요*. 술 취해 오는 데요 *아빠랑**

얘기한적 한 번도 없어요. 늦게 들어와서요……. *아빠랑 둘이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가는 동안 내내 *아빠는 통화만 했어요*. *아빠는 회사일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짜증도 내요* 똑바로 해라 그리고 화를 잘 내요.

<2017. 6. 27. B 3차세션>

화를 내는 아버지- ‘우리하고 있을 때 웃는 표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버지 스스로 능력부족을 느껴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그에 따른 갈등이 표현되거나 혹은 아버지의 체면이나 위신을 자녀가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서 일 수 있다. 내담자들은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을 화로 표현하는 모습이 많았다.

*우리 *아빠는 화내는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로 안 되면 ‘손들어’라고 자주 말하고 안 되면 무조건 화내요. *아빠는 컴퓨터 하고 TV보면서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아빠가 웃을 때는 회사 친구들과하고 있을 때 일거예요*. *우리하고 있을 때는 웃는 표정 없어요**

<2017. 6. 12. D 1차세션>

아빠는 우리가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임마 임마’ 그래요 *엄마가 어디가시고*

형하고 아빠랑 셋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TV보고 아빠는 자고 그랬어요. *아빠* 목소리는 *화날 때만* 들려요 욕 할 때도 있어요.

<2017. 6. 20. B 2차세션>

아빠 생각하면 *화내고* 무서운 생각이 나요(눈물을 글썽임). 친구하고 싸웠는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얘기해도 안 들어 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어차피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내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화를 내고 나를 혼냈어요.

<2017. 6. 5. C 1차세션>

해라, 하라고 잔소리 하는 아버지- ‘아빠는 회장님 같아요’

모든 일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일이 제대로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점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게도 아버지와 같이 항상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길 원한다. 자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일 처리가 잘 되지 않거나 실수 할 것을 걱정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해라’ ‘하라’라는 자녀가 잔소리로 인식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 하려고 하였다.

양치는 했니? 9시다 자야지! 하며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해요 책 정리 안 할 때 무섭게 화내요. 과자를 먹거나 할 때도 아빠가 허락해야 하고, TV를 보고 싶어도 아빠가 숙제 한 거 확인 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빠*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나중에 하는 것을 *아빠*는 못 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호랑이처럼 변해요

<2017. 7. 10. H 1차세션>

아빠는 놀고 싶은데 공부나 숙제를 하고 놀라고 해요……. 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해도 되는데 *아빠* 말대로 *해야 해요* *아빠* 말 듣지 않으면 손들으라고 해요 *아빠* 마음대로 해요 *아빠*는 그래서 *회장님* 같아요

<2017. 6. 12. D 1차세션>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 ‘아빠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에너지가 자녀들을 향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버지들이다.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적다. 아버지 자신의 내·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몸은 함께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버지이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기대치가 없고 함께 있되 따로 있는 모습이었다.

아빠하고 원주나 서울 갈 때가 있는데 차 안에서 *얘기는 안하고 계속 게임만 시켜줬어요*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어서 난 좋았어요……. 엄마가 빵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먹고 싶은 햄버거만 맨날 맨날 먹어요 빵돌이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싸워요.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

면서. *아빠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2017. 6. 20. B 2차세션>

주말에 *아빠*하고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런닝맨을 좋아해서 같이 봤어요. *아빠*가 런닝맨 좋아하거든요. 나는 재미 없어요. *아빠*는 내가 뭐 물어보면 ‘*아*’하고 그냥 대답해요 ‘*아*’만 말해요 주말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모두 불꽃놀이 구경 가기로 했는데 *아빠*는 *귀찮아서 안 간테요* 우리만 갔다 왔어요.

<2017. 6. 19. C 3차세션>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계

표 2는 아버지 자신이 보고한 페르소나와 자녀가 보고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자녀 성별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아버지 자신이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는 완벽지향페르소나와 체면지향페르소나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자녀 성별 등분산 검정에 따르면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모든 페르소나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아들 아버지는 딸 아버지에 비해 비관페르소나를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F = 8.28, p < .05$). 딸($F = 6.83, p < .05$).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양식을 분석하기 앞서 실시한 등분산 검정에 따르면 상호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은 성별 분산 차이가 있었고 일방적 의사소통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버지와 일방적 의사소통보다는 상호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상호 $M = 2.98, SD = .62$; 일방 $M = 1.92, SD = .67$). 상호적 의사소통은 성별 차이가

표 3. 자녀 성별에 따른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유형 기술통계

변인	하위 구인	전체 ($N = 298$)		남아 ($n = 161$)		여아 ($n = 137$)		$F / t (p)$
		M	SD	M	SD	M	SD	
아버지 스스로 보고한 페르소나	비관	1.99	.49	2.06	.49	1.90	.48	8.28(.00)*
	성취	2.66	.64	2.68	.72	2.62	.54	.67(.41)
	민감한	2.25	.46	2.29	.43	2.21	.50	2.62(.10)
	배려	2.66	.41	2.62	.37	2.70	.44	3.01(.08)
	유희적	2.70	.42	2.67	.39	2.74	.44	1.88(.17)
	완벽	3.07	.47	3.05	.44	3.10	.49	.90(.34)
	체면	3.03	.42	3.03	.38	3.04	.46	.01(.89)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상호	2.98	.62	2.91	.67	3.08	.55	-2.39(.02)*
	일방	1.92	.67	1.96	.66	1.87	.68	1.10(.27)

* $p < .05$.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일방적 의사소통은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아버지와 상호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다(남아 $M = 2.91$, $SD = .67$, 여아 $M = 3.08$, $SD = .55$).

아버지가 스스로 보고한 페르소나의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결과 산출에 앞서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아버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2)를 보이지 않았다(표 3).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은 두개의 의사소통 범주(상호, 일방)에 따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R^2 = .03$ 부터 $.07$ 까지 수준의 모형-데이터 적합도를 보였다.

두개 의사소통 범주 가운데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에 아버지 페르소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본 회귀분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F = 2.72$, $p = .007$, 일방 $F = 1.338$, $p = .224$).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아버지 페르소나는 완벽지향 페르소나였다($t = 1.984$, $F = .05$). 즉 완벽지향이라 자가 보고한 아버지들일수록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들과 상호적 소통을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 성차가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t = 1.853$, $p = .07$) 완벽지향이 모든 자녀와 아버지의 상호적 소통에 결정적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과 각 모형에서 나타난 페르소나-의사소통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의 관계 성별 차

성별에 따른 페르소나의 의사소통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페르소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아버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2)를 보이지 않았다. 상호작용 모형 분석 결과,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103$, $p = .046$). 일방적 의사소통에는 페르소나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모형이 유의하지 않았다($F = .674$, $p = .694$).

앞서 기술통계와 상호작용 분석에서 나타난 자녀 성별 차와 상호작용 모형 유의성을 토대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가 보이는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간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회귀분석 결과 산출에 앞서 독립변인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아버지 페르소나 7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으로 높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2)를 보이지 않았다(표 4, 5).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아버지 상호적 의사소통 스타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4, 5). 남아, 여아 모두 상호적 의사소통 방식이 페르소나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F = 2.103$, $p = .046$, $F = 2.449$, $p = .022$)이었다. 유의성을 보인 모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보고한 아버지의 상호적 의사소통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의 배려지향 페르소나($t =$

표 4. 페르소나 (독립변인)와 의사소통 (종속변인)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페르소나 → 상호								페르소나 → 일방							
	B	SE	β	t	p	VIF	F	p	B	SE	β	t	p	VIF	F	p
비판적인	-.15	.09	-.12	-1.67	.10	1.62	2.72	.01*	.18	.10	.13	1.78	.08	1.62	1.34	.22
성취지향	.07	.06	.07	1.12	.26	1.33			-.11	.07	-.11	-1.6	.11	1.33		
체면지향	-.13	.10	-.09	-1.30	.19	1.40			-.04	.11	-.03	-.38	.71	1.40		
민감한	.07	.10	.06	.75	.45	1.67			-.01	.11	-.01	-.12	.91	1.67		
배려지향	.11	.10	.08	1.09	.28	1.48			-.06	.12	-.04	-.51	.61	1.48		
유희적	.03	.09	.02	.37	.71	1.21			-.08	.10	-.05	-.83	.41	1.21		
완벽지향	.18	.09	.14	1.98	.05*	1.52			.15	.10	.11	1.50	.14	1.52		
자녀성별	.14	.07	.11	1.85	.07	1.06			-.06	.08	-.05	-.77	.44	1.06		
$R^2(\text{adj}, R^2)=.07(.04)$								$R^2(\text{adj}, R^2)=.03(.01)$								

Not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 $p < .05$.

표 5. 페르소나(독립변인)와 의사소통(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 결과: 남아

모형	페르소나 → 상호								페르소나 → 일방							
	B	SE	β	t	p	VIF	F	p	B	SE	β	t	p	VIF	F	p
비판적인	-.09	.13	-.06	-.65	.52	1.52	2.10	.05*	.02	.13	.02	.17	.87	1.52	.67	.70
성취지향	.11	.08	.11	1.33	.19	1.23			-.13	.08	-.14	-1.61	.11	1.23		
체면지향	.07	.15	.04	.50	.62	1.21			-.04	.15	-.02	-.24	.81	1.21		
민감한	-.00	.15	-.0	-.01	.99	1.50			-.01	.15	-.00	-.05	.96	1.50		
배려지향	.33	.16	.18	2.07	.04*	1.31			.03	.16	.02	.16	.87	1.34		
유희적	.11	.14	.07	.80	.42	1.16			-.10	.14	-.06	-.70	.48	1.16		
완벽지향	.12	.13	.08	.88	.38	1.34			.23	.14	.16	1.68	.10	1.34		
$R^2(\text{adj}, R^2)=.09(.05)$								$R^2(\text{adj}, R^2)=.03(-.01)$								

* $p < .05$.

2.073, $p = .04$)의 영향이 가장 컸다. 딸은 완벽지향 페르소나($t = 2.00$, $p = .05$)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비판적페르소나($t = -2.40$, $p = .02$)와 체면지향페르소나($t = -2.13$, $p = .04$)가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표 6. 페르소나(독립변인)와 의사소통(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 결과: 여아

모형	페르소나 → 상호								페르소나 → 일방							
	<i>B</i>	<i>SE</i>	β	<i>t</i>	<i>p</i>	<i>VIF</i>	<i>F</i>	<i>p</i>	<i>B</i>	<i>SE</i>	β	<i>t</i>	<i>p</i>	<i>VIF</i>	<i>F</i>	<i>p</i>
비판적인	-.30	.12	-.26	-2.40	.02*	1.74	2.45	.02*	.36	.16	.26	2.29	.02	1.74	1.32	.25
성취지향	.03	.11	.03	.24	.81	1.68			-.10	.14	-.08	-.72	.47	1.68		
체면지향	-.28	.13	-.23	-2.13	.04*	1.77			-.01	.17	-.01	-.07	.95	1.77		
민감한	.22	.13	.20	1.67	.10	2			-.04	.16	-.03	-.27	.79	2		
배려지향	-.10	.13	-.08	-.75	.45	1.71			-.11	.17	-.07	-.66	.51	1.71		
유희적	.03	.12	.03	.26	.80	1.38			-.05	.15	-.03	-.32	.75	1.38		
완벽지향	.29	.12	.26	2.34	.02*	1.82			.09	.16	.06	.56	.58	1.82		
$R^2_{\text{adj}}, R^2 = .12(-.07)$								$R^2_{\text{adj}}, R^2 = .07(.02)$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학교생활의 시작인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녀 내담자의 상담 상황 속에서 도출하고 자녀-아버지 의사소통과 아버지가 보고하는 자신의 페르소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한 의사소통-페르소나 간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지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과정 중 나타난 자녀 내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 결과, 참여자 아버지들은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 함께 이야기하는 아버지, 바쁜 아버지, 화를 내는 아버지, 잔소리꾼 아버지, 따로 있는 아버지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만 보면 앞의 두 개 아버지상, 즉 몸놀이와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긍정적인 아버지 상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네 가지 아버지 상은 부정적인 아

버지 상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에서는 몸으로 놀아주는 아버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몸으로 때우는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 보여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려졌다. 즉 참여자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내담자를 제외한 모든 자녀 내담자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아버지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식의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닌, 자녀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양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보이는 페르소나는 완벽, 체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아버지들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자녀로 둔, 다소 젊은 아버지들임을 고려할 때 주목할 바

이다. 흔히 시대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페르소나가 덜 경직된 형태로 변화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응답에 따르면 여전히 아버지는 외현적으로 경직된 페르소나, 업무에 충실하고 걸모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아동의 성별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관심한 아버지 상은 면담 과정에서도 발견되었다.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아빠가 좋아하는 TV만 봐요’, ‘아빠는 회사 친구들과 있을 때만 웃어요’)으로 자녀들은 아버지와 있을 때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비수용적 혹은 일방적이라고 지각하며(‘아빠하고 차 타고 가는데 말은 안하고 게임만 시켜줘서 좋았어요’, ‘내가 물어보면 ‘어’ 하고 그냥 대답만 해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은 따로 인 모습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보고하는 페르소나에 대한 경향이 자녀의 성별 차가 뚜렷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자녀가 인식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방식에는 성별 차이가 뚜렷한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 즉 아버지 페르소나에서는 성차가 없으나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채택된 아버지 페르소나가 아버지의 인식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즉 아버지의 페르소나 표출 자체는 자녀의 성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

서는 아버지의 대화 양상이 성별에 따라 온도차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수준에서, 딸들은 아버지가 상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르소나와 의사소통 방식 간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들 아버지의 배려지향, 딸 아버지의 완벽지향 페르소나가 상호적 의사소통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아들들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자가 보고하는 아버지와 더 통한다고 느낀 반면, 딸은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는 아버지와 더 잘 소통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비판적 아버지 혹은 체면을 추구하는 아버지를 둔 딸들은 의사소통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딸들의 경우, 좀 더 감정선이 아들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완벽주의적 아버지 상과 딸의 상호적인 의사소통 간 관련성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즉 자신의 일을 깔끔하게 해 나가는 아버지 모습은 딸들에게 덜 혼란스럽게 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덜 깔끔한 모습을 보여 잘 통한다고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들에게는 배려하는 모습이 통하는 아빠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페르소나로 보인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 정립 시 자녀의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완벽지향 아버지 페르소나에 따라 남아와 여아가 아버지와 의사소통을 다르게 느끼는 현상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많은 어휘를 사용하며 여성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Hong & Yoon, 2016). 즉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 위치가 좌뇌와 우뇌에 넓게 있어 좌뇌와 우뇌에서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정서가 작용할 수 있어 정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Allan & Barbara, 2001). 따라서 딸들은 아들 보다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많은 생각을 동시 다발적으로 하는 등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 이런 경우,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 상대는 오히려 단순하고 깔끔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완벽주의 페르소나의 아버지는 평소 행동방식이 정돈되어 있고 책임감이 있기 있게 때문에 딸의 이러한 복잡한 심리를 보완할 수 있는 소통 상대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나 대화 방식은 자녀 성별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기존 주장들과 연관시켜 볼 때(Cho & Chae, 2016), 본 연구는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발현되어 온 아버지 페르소나가 좀 더 면밀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녀에게 상호적인 아버지로 인식되고 싶다면 아들에게는 배려하고 딸에게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할 것이다.

딸 아버지의 비판적 페르소나가 딸이 인식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비판적인 아버지들일수록 그 딸들은 의사소통이 상호적이라 느낄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의 비판 문항을 살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판적 페르소나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자주 느끼며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성”을 의미한다. 비판적 페르소나는 자기반성 사고(예, “자주 나 자신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곤 한다”와 같은 문항)를 포괄한다. 이 페르소나를 보고하는 아

버지들은 자신을 낮추고 성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딸들은 이러한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딸 아버지들로 하여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 비판적 대응이 나마 표현하는 모습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아들은 아버지의 비판적 모습에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의사소통의 요인을 아버지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살펴본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학령기 학생들에게 점차 중요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 아버지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흡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아버지 페르소나 분석 시, 아버지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였는데 아버지의 자기보고와 학생이 바라보는 아버지 페르소나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 내담자들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중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교에서의 사회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에 이루어진 상담에 의존했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긍정 언어와 부정 언어가 나타나는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녀-아버지 의사소통 중에 아버지의 언어습관이나 행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lan., & Barbara. (2001). Why men don't listen & Why women can't read map. Translated by Lee, S. I. (2011). Kimyongsu: Seoul, South Korea.
- Chae, J.-Y. & Kwon, H.-J. (2010).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der*.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189-195.
- Chae, K. S. & Hwang, H. J. (2014).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children's perceive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Nursing*, 20, 159-190.
- Chae, S. E. & Koran, J. (2017). The effects of parent involvement on kindergarten children's reading achievement: a multilevel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9-69.
- Cheon, Y.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teacher communication styles, class cohes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 Chi, H. S. (2007).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intimacy with adolescent children. *Busan Education Research*, 20(1), 153-170.
- Cho, S.-O. & Chae, S. E. (2016).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persona and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80.
- Choi, Y. I. & Won, S. S. (2013).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of the adolescents on the adjustment to the school.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0(1), 199-216.
- Clandinin, F. M.,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Do, G. H. (2012).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tyles,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39-155.
- Han, J. H. (1994).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 Father,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Children's Depression, *The Korea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 85-99.
- Han, N. & Lee, S. Y. (2015).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triangulation and instability-based self-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181-203.
- Han, S. Y. (2010).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125-143.
- Han, Y. S. (2003).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 and a sense of alie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ong, D. Y. & Yoon, C. S. (2016). Structural

- characteristics of the brain that make gender differences in leadership stud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Korea Journal}*, 3(1), 25-45.
- Huh, S. H. & Lee, M. S. (2012). Student, parent, and teacher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3(2), 39-79.
- Jacobi, J. (1973). *The psychology of C. G. Jung*. Translated by Lee, T. D. (1978) Sungmoongag: Seoul, South Korea.
- Joo, S. J. & Park, K. J. (1999). *Send your first child's school*. Bori: Seoul, South Korea.
- Kang, J. W. (1995).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type and cohesion of middle school class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im, M. H. (1989).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M. J.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it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s, and infant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jae University.
- Kim, S. Y. (2004). *Masked people*. Asan Scent January and February, Asan Social Welfare Foundation: Seoul, South Korea.
- Kim, Y. J. (2006).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coping with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Y. S. & Shin, H. J.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ociality. *Korean Education Research*, 20(3), 253-275.
- Kwon, J. M. (2009).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and persona personality on children's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Lee, H. J. (2005). *First grader 365 days*. Seoul: Yedam.
- Lee, J. R., Kim, J. A., Lee, Y. J., & Chin, Y. A. (2012). A meta-analytic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Korea Journal}*, 17(1), 151-173.
- Li, J., Galley, M., Brockett, C., Spithourakis, G. P., Gao, J., & Dolan, B. (2016). *A persona-based neural conversation model*. arXiv preprint arXiv:1603.06155.
- Murphy, M. K. (2019). Maternal dissent in mainstream news: "Peace Mom" confronts the nation's strict father.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1-22.
- Paik, K. M., Hyun, S. Y. & Han, Y. S. (2008).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apt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Annual Meeting.
- Park, S. H. & Shim, H. S.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faceted persona test. *Counseling Research {Korea Journal}*, 7, 231-257.
- Park, S. H. (2006). A comparis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between alcohol-dependent

- patients and depression patients by multifaceted persona tes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11(2), 419-435.
- Park, Y. N. & Lee, J. S. (2012). The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anger perceived on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7(1), 75-91.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 S. residential fathers: sources, and consequential.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New York: John Wiley. pp. 222-271.
- Shim, H. S. & Park, S. H.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types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Korea Journal}*. 11, 1-17.
- Shin, S. J. (1994).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elf-concept: focused on transcription pub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 Stone, H. & Stone, S. (1989). *Embracing ourselves*. Novato, C.A: New World Library.
- Yang, N. M. & Lee, E. K. (2008).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as it applies to the relationship of career-aspiration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unseling & Psychotherapy*, 20(2), 455-472.
- Yim, J. H. & Cheon, J. S. (2012). Effect of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169-190.
- Yoon, S.-Y. & Chung, O.-B.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You, P. S. & Shin, S. Y. (2012).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tyles according to family background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3(4), 51-77.

1 차원고접수 : 2019. 10. 26.

수정원고접수 : 2020. 03. 09.

최종게재결정 : 2020. 03. 16.

Relationship betwee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ather Personas and Child-Father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the Child

Cho, Soon-Ok

Chae, Soo Eun

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first-person elementary school father’s persona on child-father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analysis of personal interviews an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reported father personas and student-father communications were conducted.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nine first-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 and recorded and analyzed the process. For the quantitative study, 298 first-year students (161 males and 137 females) in the same area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child-father communication scale, and 298 students’ fathers responded to the multi-person persona test. The qualitative findings show that fathers are classified as players, talkers, businessmen, angry dads, naggers, and dads who are separated. Quantitative studies show that perfection and face-oriented personas tend to be most common among participating father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gender between persona and communication: The son was caring-oriented persona and the daughter perfection-oriented persona were associated with an interactive fathering attitude of the children’s father. This means that even the first grade students of the same elementary school can establish effective communication relationships if their father’s use of persona differs according to gender.

Keywords: Father Persona, 1st grade students, Communication style, Gender difference